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임은의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Child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of Career-interrupted Women :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Eun-Eui Y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Far Eas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868명의 경력단절여성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상호작용($\beta = -.184$), 부부갈등($\beta = .427$), 사회적지지($\beta = -.096$)이며 32.3%의 설명력을 보였고,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시대에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경력단절여성, 자녀상호작용, 사회적지지,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 interaction,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interrupted women's parenting stres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between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The data of 8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as used for this, and it was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data of 868 career-interrupted wome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career-interrupted women's parenting stress are the child interaction,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and it showed 32.3% of explanatory power and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was the highest. It was also found that marital conflicts were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 with the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and reduce their parenting stress in view of supporting the career-interrupted women's reentry of labor market in the era of work-family balance.

Key Words :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Child interaction,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This paper has been studied with the support of Far East University in 2019(FEU2019-R22)

*Corresponding Author: Euneui Yim(empower@kdu.ac.kr)

Received October 7,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1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우리 사회는 일·가정 양립을 넘어 일·가정 균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전업 주부의 길을 가는 경력단절여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현실은 일·가정 갈등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의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181만명에 이르며, 이는 15~54세 기혼여성의 20%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 이들 경력단절여성들은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마친 후에 다시 노동 시장에 복귀할 계획을 가지나 이들의 고용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2].

경력단절여성들은 직장을 그만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의 취업 장벽을 만들게 되므로 자녀 양육단계에서 취업 저해 요인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선결과제일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있어서 자녀 양육 단계에서 겪게 되는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수준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 포기나 하향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으나[4,5],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경력이 단절된 초기 단계에 심하다가 점차 기울기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6]. 그런데 경력단절 초기단계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여성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형성으로 경력 포기 뿐만 아니라 향후 출산포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 발달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 더 나아가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자녀요인인 자녀상호작용과 부부요인인 부부갈등, 그리고 환경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꼽는다[8]. 자녀상호작용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히 초기 단계에 육아가 익숙하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9]. 부부갈등 또한 경력단절을 전후로 국면의 전환을 맞는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1인 생계부양자가 되었을 때 남성은 도구적 존재로서 노동의

극대화에 주력하며 여성은 아이 돌봄이 강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10]. 경력단절여성들은 이른바 독박육아를 떠맡게 되고, 부부관계에서 이전과 다른 힘과 역할의 불균형으로 부부갈등이 일어난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어머니는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며 정서적으로 지친 나머지 아이의 정서적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11]. 이는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결혼생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2].

경력단절여성들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경계에 걸쳐 있음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또한 변화한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돌봄에 필요한 사회자본의 동원 수준에 의해, 비취업모는 사회 자본의 접근 수준에 의해 양육스트레스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직장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이뤄지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경력단절여성들이 자녀상호작용과 이를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마련의 과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부갈등은 이들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중대한 역할 작용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및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인과관계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반으로 예방 및 경감 대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는 정책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통계청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통계청의 의하면 경력단절여성은 15세이상 54세이하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라 정의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하면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명시한다. 이처럼 정책근거가 되는 법적 정의에서는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취업경험이 없는 자까지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 경력단절여성의 육아를 다룬 연구들은 결혼이나 임신·출산 등의 생애사건과 육아 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으로 국한하고 있다[14].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피고 있는 본 연구는 임신·출산,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그만두어 비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협의의 개념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정의한다.

2.2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한 명제이다[15]. 어머니와 자녀상호작용은 자연스러운 일상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그에 따른 자녀의 반응,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교류적 행동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아상호작용 또는 모자의 상호작용이라고 지칭된다[16]. 어머니는 자녀와 상호교류 과정에서 자극, 강화, 반응을 일으켜 자녀의 경험을 확장시켜주고, 자녀의 능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이끌어 준다[16,17]. Bowlby에 의하면, 영·유아기의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대개 이후의 생애주기에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자녀의 대인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8]. 즉 어머니와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졌던 아동은 자신감이 있으며, 문제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긍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는 예단과 달리 자녀가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상호작용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어머니주도형 상호작용’과 ‘아동주도형 상호작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머니주도형 상호작용’은 20가지 행동(긍정적 정서 나타내기, 애정표현하기, 모델보이기, 촉진하기, 지지하기, 달래주기, 호기심 충족시키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주의 환기하기, 비계설정하기, 함께 구성하기 및 참여하기, 도움주기, 언어로 설명하기, 제안하기, 질문하기, 지시하기, 규칙 및 습관들이기, 갈등 해결하기, 성취감 주기, 피드백주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경우에 해당하며, ‘아동주도형 상호작용’은 9가지 행동(긍정적 정서 나타내기, 애정표현하기, 인정하기, 민감하게 대처하기, 함께 구성하기 및 참여하기, 호기심 충족시키기, 비계설정하기, 도움주기, 피드백주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경우가 해당된다[8].

대체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 대상의 성격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 어머니 대상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자녀 대상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의 인성 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19]. 그러나 최근에는 어머니 대상의 연구로 옮겨 오면서 취업모와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거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취업모와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연구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높은지에 대해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민감성을 떨어뜨려 자녀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어렵다는 결과를 주장하는가 하면[9], 이와 반대로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리양육자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자녀 간 긍정적인 정서 관계를 저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20]. 또한 자녀 대상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주로 독립변수로 다뤄졌던 것에 반해 어머니 대상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종속변수로 다뤄졌다. 이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자체 보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의 인지적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볼게 되었다[21].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은 양육 민감성,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며 [22,23], 부정적인 모-아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

해 보면 자녀상호작용과 양육 스트레스는 상호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2.3 경력단절여성의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의해 비중이 달라지며 육아 부담으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은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어머니의 아이 돌봄인 모성은 남성의 노동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강요되었다는 필립 아리에스의 주장을 전제로 하면, 자녀 양육은 즐거움과 동시에 고통을 수반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10]. 일례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가 된 후 자신의 역할 비중에 대해 여성의 경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51.8%, 27.2%, 20.7%로 두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자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32.7%, 35.9%, 31.5%로 응답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여성은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남성은 역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25]. 또한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이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보다 적응하기가 더 어려움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과 직장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다가 출산 직전이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11].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내보다 남편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가정 경제를 위해 남성이 직장생활을 하고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력단절여성이 된다[27].

경력단절여성은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정체감의 혼란을 느끼고 대인적으로는 취업 주부에 대해 상대적 위축감을 느끼는 부정적 자아를 겪게 된다[27]. 게다가 부부관계에서 양육분담의 평형이 깨어지고 독박육아의 현실에 처하게 되면서 부부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부부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사고방식 및 특성을 지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갈등을 말한다[28]. 부부갈등은 배우자와 상충되는 기대, 욕구,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은 직장생활 전후 달라진 남편의 양육행동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워한다.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28-30]. 부부갈등과 우울 간에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영아의 정서적 기질이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또한 아버지의 자녀가치 또는 양육참여가 매개로 하여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낮을수록 부부관계의 질도 낮아지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5].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이 두 변인은 직, 간접적인 인과관계로 확인되었으며, 그러나 부부갈등만을 유일한 매개변수로 살피는 연구는 드물었다.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에서 비취업 상태가 되며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 역할에 따른 부부관계의 상당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자녀양육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에서 부부갈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4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개인은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과 교사, 상담가 등의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살아간다[32]. 주요 사회적 관계망들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기 때문이며,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

사회적 지지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는 소속된 상호의존적인 관계망 속에서 느끼는 보살핌과 애정, 존경과 존중, 자신의 가치 인정 등을 의미한다[33]. 또한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되는데[34]. 구조적 측면이란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효한 관계망의 크기, 밀도, 빈도, 관계의 혼합된 정도, 상호 호혜성, 기간, 동질성, 친족과 비친족계의 상대적 비율, 관계의 방향, 구성원 사이의 지리적 거리 등의 객관적이고 양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기능적 측면이란 '질적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포함한다[35].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인지, 정

서, 행동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는 높으면서 부정적인 효과는 완화하므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영향요인이나 매개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6,37].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경우 심리 상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38].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대상 비교에서는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에서 취업모의 경우 소속 지원이, 비취업모의 경우 타인 지원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4].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어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작업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 그리고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부부갈등이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다음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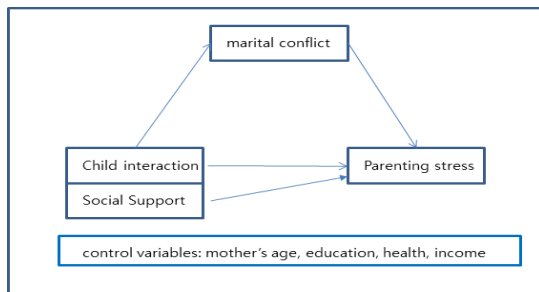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가설1.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경력단절여성의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경력단절여성의 부부갈등은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동의 양육과 발달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Pane Study on Korean Children, PSKD)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실시된 8차년도 패널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한 최근 차수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분석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은 8차년도 응답자 중 과거에는 취업 중 또는 학업 중이었으나 현재는 미취업자라고 응답한 사례자의 데이터 값을 취하였다.

3.3 연구도구

3.3.1 자녀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서 이용된 자녀상호작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에게 '이야기 해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집안일 함께 하기', '함께 퍼즐 게임 하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상호작용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자녀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0$ 이었다.

3.3.2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서 이용된 부부갈등은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7$ 이었다.

3.3.3 사회적 지지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서 활용된 사회적 지지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가나 휴가때 같이 놀러간다' 등의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7$ 이었다.

3.3.4 양육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서 활용된 양육스트레스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자신이 없다’ 등의 총 11개 문항으로, 부모역할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0$ 이었다.

3.4 자료처리 및 분석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통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 알파계수 산출, 상관분석을 통한 변수 간 관계 측정, 회귀분석을 통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변인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제8차 한국아동패널 전체 조사자 중 경력단절여성은 총 868명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연령 별로는 30대 576명(66.4%), 40대이상 281명(32.4%), 20대 11명(1.8%) 순으로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4년제대졸이상 344명(39.6%), 고졸이하 286명(32.9%), 전문대졸 238명(27.4) 순으로 4년제대졸이상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연기준 3천만원 초과 599명(69%), 2천만원~3천만원 207명(28.8%), 2천만원 미만 62명(7.1%)를 보여 3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가구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number	percentage
age (n=868)	20-29	11	1.3
	30-39	576	66.4
	over 40	281	32.4
education (n=868)	under highschool	286	32.9
	college	238	27.4
	over university	344	39.6
income (n=868)	under 2,000	62	7.1
	2,010-3,000	207	23.8
	over 3,010(thous.)	599	69.0

4.2 변수간 상관관계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도 0.78이 가장 높았고, 0.68, 0.63, 0.48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22~.468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측정 변인들 간에 .8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1	2	3	4
1.child interaction	1			
2.marital conflict	-.133**	1		
3.social support	.122**	-.165*	1	
4.parenting stress	-.255**	.468**	-.187*	1
Mean	2.20	2.04	3.81	2.42
Standard deviation	0.48	0.78	0.63	0.68

*p<.05, **p<.01, ***p<.001

4.3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가구 소득을 통제 변인으로 하고,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가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회귀분석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최소가 .960, 분산 팽창요인 값이 최대가 1.04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자녀상호작용은 $\beta = -.161$ 로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설1은 지지받은 것으로 검증되었다($t = -5.483, p < .001$). 즉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은 $\beta = .388$ 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가설2 또한 지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3.067, p < .001$).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beta = -.097$ 으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 가설3 또한 지지받았다($t = -3.294, p < .01$).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32.3%로 나타났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Parenting Stress

Variable	B	SE	β	t	R2 (adj. R2)
age	-.154	.057	-.078	-2.688**	.323 (.317)
education	-.626	.246	-.076	-2.539*	
health	-1.96	.284	-.203	-6.914***	
income	-.001	.001	-.026	-.876	
child interaction	-.254	.046	-.161	-5.483***	
marital conflict	.466	.036	.388	13.067***	
social support	-.089	.027	-.097	-3.294**	
(Constant)	44.98	3.18		14.148***	

*p<.05, **p<.01, ***p<.001

4.4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Table 4에 따르면,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은 1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고($\beta = .468, p<.001$), 2단계인 자녀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였다($\beta = -.255, p<.001$). 3단계에서 자녀상호작용과 부부갈등을 동시에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한 결과, 매개변인인 부부갈등이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1단계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 = .442, p<.001$),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22, p<.001$). 따라서 가설4의 경우도 지지받았다.

Table 4. Mediation Analysis of marital conflict between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step	variables	SE	β	t	R2 (adj. R2)
1	marital	.036	.468	15.396	.219

step	conflict → parenting stress				(.218)
2 step	child interaction → parenting stress	.052	-.255	-7.683	.065 (.064)
3 step	child interaction → parenting stress	.047	-.194	-6.471	.256 (.254)
	marital conflict → parenting stress	.036	.442	14.76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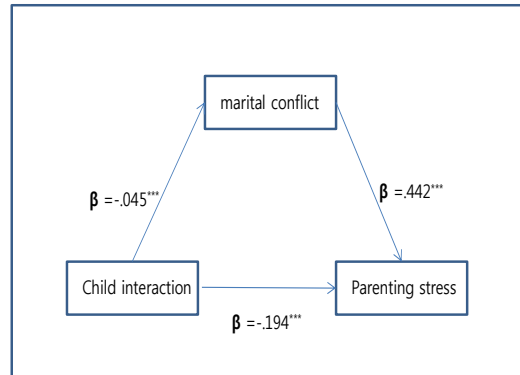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between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녀관련 변인, 배우자관련 변인, 환경관련 변인 중 각각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를 주요한 예측 변인으로 선정하여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부부갈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와 이에 관하여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육아정책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8차 육아패널에 반영된 경력단절여성의 현황은 30대가 66.4%로 가장 많고, 4년제 대졸이상이 39.6%이었으며, 가구소득

은 연기준 3천만원 초과가 69%에 해당되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부갈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였으며, 반면에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22]와 동일한 결과를,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는 다룬 선행연구[36,37]와 동일한 결과를,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28,29,30]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들 변수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증하였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녀상호작용($\beta=-.184$, $p<.001$), 부부갈등($\beta=.427$, $p<.001$), 사회적지지($\beta=-.096$, $p<.01$)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할 경우 32.3%의 설명력을 보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인과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다르게 부부갈등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요인임을 밝혔고, 이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대상적인 특성에서 기인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인과관계 분석결과를 통해서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매우 큼을 인식하고 이들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역할을 분석하였더니, 부부갈등은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점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의 지위가 직장여성에서 전업주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육아참여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오는 기대수준과 현실의 불일치가 컸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향후 질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자녀상호작용과 관련된 양육능력 향상, 부부갈등과 관련된 바람직한 부부관계 형성,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중요

한 과제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들의 양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머니 본인의 양육행동과 자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그동안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데서 기인한 자책과 미안함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의 행동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반응체계를 가짐으로써 일관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육아정보 및 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경력단절 이후에 오히려 더 중요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부부의 역할이 1인 생계가구 모델로 역행함으로써 여성의 독박육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점차 상호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부부갈등을 초래한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아버지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육아지원 체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의도했던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된 지원체계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면서 경력회복을 방해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상별 특성과 복귀 준비단계에 따른 교육훈련체계와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이들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양육스트레스의 연구주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둔 양육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이 경력단절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 요청되는 시점인데,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요인 중에서 다른 변인보다 특히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후속연구로 양육스트레스가 노동시장재진입과 향후 출산의향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6). '2016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2] M. J. Kang. (2014). *An Analysis Effects on Reemployment of Career-interrupted Women*.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3] J. M. Hwang. (2014). *Family-Nation-Society Reproduction*. Sociology of families and intimacy. Seoul : Dasan Books.
- [4] H. J. Moon. (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2(11), 109-122.
- [5] J. H. Seo & J. K. Kim. (2012).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101-121.
- [6] S. R. Park, B. R. No, H. J. Park & S. H. Yi.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ajectorie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Children's Tempera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s: Multiple Group Analysi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9(1), 119-148.
- [7] H. K. Yom, J. S. Kim & E. E. Yim. (2019).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and Causal Structure of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3(2).
- [8] M. H. Lim & M. J. Lee.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Childcare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9(4), 147-178.
- [9] Clarke-Sterwart. K. A.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reconsidered: Risks for parents, children, and researchers.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3(3), 293-318. DOI :10.1016/0885_2006(88)90006-3.
- [10] Phillippe Aries (2003),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egime*. Seoul: Saemulgyoul Books.
- [11] John W. Jacobs. (2014), *All You Need is Love and Other Lies About Marriage: How to Save Your Marriage Before It's Too Late*, Seoul: HAKJISA PUBLISHER.
- [12] K. I. Choi. (2019). An analyzing of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with early children: Using API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417-423. DOI :10.14400/JDC.2019.17.5.417.
- [13] Y. J. Lee & M. J. Jin. (2013). Social Capital and Parental Stress of Marri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Variations by Employment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51(2), 229-239.
- [14] M. A. Kuk. (2018). Career-interrupted Women, Why Did They Quit Their Jobs? *Journal of Women's Studies*, 28(1), 251-282.
- [15] G. H. Shin & H. S. Shim. (2018). The Influence of Maternal Family-of-origin Experiences: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Value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2), 227-237. DOI :10.15207/JKCS.2018.9.12.227.
- [16] K Nina & C. Alice. (1996). Mother-infant Reengagement Following the Still-face: The Role of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in Infant Affect Regulation.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19(3), 259-370. DOI :10.1016/S0163_6383(96)90034_X.
- [17] E. H. Lee & Y. J. Yang. (2018).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37-44. DOI :10.22156/CS4SMB.2018.8.2.037.
- [18] B. John.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 Basic Books.
- [19] A. N. Kim & Y. S. Kwon. (2014). Effect of Employed Mother's Work-mother Role Conflict on Parenting Stress: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375-384. DOI :10.14400/JDC.2014.12.10.275.
- [20]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3), 387-403. DOI :10.1037/0033_2909.117.3.387.
- [21] R. Abidin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DOI :10.1207/s15374424jccp2104_12.
- [22] M. R. Jung, B. S. Lee, J. Y. Kwon, S. K. Park & E. Y. Kan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 715-728. DOI :10.5934/KJHE.2012.21.4.715.
- [23] S. M. Kang & J. A. Park. (2019). The Effect of Mather's Child Rearing Behavior on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0), 122-132. DOI :10.22156/CS4MB.2019.9.10.122.
- [24] S. N. Seo, S. G. Lee & S. H. Lim. (2012).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Digital Convergence*, 10(8), 327-333. DOI :10.14400/JDPM.2012.10.8.327.
- [25] EBS DocuPrime, Mother Shock: #3 I am Mom, 2011.6.
- [26] J. M. Gottman & C. I. Notarius. (2002). Marital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and a Researc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Family Process*, 41(2), 172.
- [27] C. H. Oh. (2018). *Sociology of Marriage & Parenting*, Humanist Publishing.
- [28] J. H. Keum & D. S. Kim. (2014).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52(2), 141-150.
- [29] H. Y. Min & Y. M. Lee. (2009). The Relationships

- among the Marital Conflict, Child-rearing Stress and Affection -Rejection Parenting for Mothers of Preschoole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27(6), 203-213.
- [30] S. W. Seo & D. K. Lee. (2013).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Couple Conflict and Infants' Emotional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5), 279-298.
- [31] J. H. Park & M. S. Lee. (2014). The Effect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in Their Transitional Period: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32(3), 45-63.
- [32] H. Moon & H. S. Kang. (2018).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ocio-ecological Factors on School Violence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2), 421-428. DOI :10.15207/JKCS.2018.9.12.421.
- [33]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DOI :10.1097/00006842_197609000_00003.
- [34] H. Y. Baek. (201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Aged Participating in Senior Citizen's Cente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8(4), 73-92.
- [35] R. Jacobson. (1986). Female Alcoholics: a controlled brain scan and clin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DOI :10.1111/j.1360_0443.1986.tb00386.x.
- [36] C. A. Chun & S. Y. Park. (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34(5), 115-130.
- [37] E. H. Ju & Y. Lee. (2001).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Stress of Japanes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Human Ecology*, 15, 89-106.
- [38] J. Greenberg. (1990). Employee theft as a reaction to underpayment inequity: The hidden cost of pay cu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5), 561-568. DOI :10.1037/0021_9010.75.5.561.

임 은 의(Eun-Eui Yim)

[정회원]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사회적경제, 가족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다문화복지

· E-Mail : empower@kdu.ac.kr